

희망을 꿈꾸며

제19회 자활성공수기집 중 발췌 및 각색





난 어려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융통성이 없는 숙맥과 같아서
결혼생활도 힘들었던 것 같다.



33살의 나이에 남편과 헤어졌고,
겁도 없이 자신감 하나로 아이들을 데리고
단칸 월세방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다...



나는 결국 한쪽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가 생겼고,
얼굴에는 30센티가 넘는 흉터가 남았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집 앞의 작은 회사를 다녔고,
토요일에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파출 일도 했다.
시력이 좋지 않고 체력이 따라 주질 않아서
회사는 오래 다니지 못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에서 자활센터를 소개받았고,
청소사업단에서 학교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하루하루 일을 할수록 보람으로 가득해졌다.



이후 자활센터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창업교육을 받았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의 여왕’을 창업하였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면서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였다.
어느덧 3년이 지나 지원금과 그동안 부은 만기 적금,
그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두 손 주먹 불끈 쥐고 더욱 용기를 낼 수 있게
희망을 준 자활센터에 감사하다.
나도 이 사회에 웃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희망의 천사가 될 것이다.

-끝-



한국자활복지개발원